

# 농림축산식품사업 1조7103억 예산 신청

###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수도 육성을 위해 전년대비 7% 증액 식품기업 매출 7조원 달성, 농민소득 6천만원대 진입 뒷받침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수도로의 대도약을 위해 1조 7,103억원 규모의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신청액인 1조5,904억원 보다 1,199억원, 7.5% 증가된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신규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수요를 신청받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3일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6대 전략에 기초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예산수요를 신청했다.

먼저 '창년농 창업 1번지 조성'을 위해 경영실습 농장과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및 청년 보금자리 조성, 관료확대를 위한 산지유류 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772억이 반영됐다.

또한, '수요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딱거리 통합지원센터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외식업체 지

역식재료 수급 활성화 등에 20개 사업에 1,765억원을 신청하게 된다.

여기에,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스마트종자 연구개발, 동물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18개 사업에 794억원을 신청했다.

도는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핵심인프라 구축과 농생명 신산업 육성 및 기반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

업구조 전환 등 80개 사업에 2,837억원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29개 사업에 9,588억원 △활력있는 농촌을 조성 17개 사업에 1,339억원이 포함됐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도는 식품기업 매출액 7조원 달성, 농가소득 6천만원 진입의 2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신청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계기가 마련돼 농생명 산업의 혁신성장과 농민 행복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은 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4년 제1회 전북 CEO지식향연 연을 개최했다.

## 제1회 전북 CEO지식향연 성료

###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미영 서울대 연구위원 초청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전북신보)은 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렌드코리아 2024'의 공저자인 전미영 서울대 연구위원을 강연자로 초청해 '2024년 제1회 전북 CEO지식향연'을 개최했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CEO지식향연은 광속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한 걸음 앞서가는 경영을 추진하는 뜻에서 '변화와 생존'을 그 테마로 삼고자 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전북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힌트와 통찰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 시작에 앞서, 김광영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바로 변화의 몸부림이다. 전북이 더 새롭고 더 특별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새로운 기업유치로 인한 활력이 절실하다"며 "중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열과 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전미영 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의 허를 뛰어넘는 2024년 10대 트렌드 키워드들을 주제로 분초사회, 호모 프롭트, 육각형 인간, 버라이어티 가격전략, 도파밍, 요즘남편 없던야빠, 스피노프 프로젝트, 디토소비, 리워드폴리탄, 돌봄경제를 제시했다.

/김옥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전북 혁신도시 내 기지제 수변공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초제거 작업에 지난 1일 착수, 20일동안 진행하고 있다.

###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혁신도시 기지제 수질개선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이광희)는 전북 혁신도시 내 위치한 기지제 수변공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초제거 작업에 지난 1일 착수해 20일간 진행하고 있다.

기지제 수변공원은 수초와 수생식물의 과잉 번식 및 퇴적물의 부식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해 수질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이번 수초 제거를 통해 기지제의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와 전주시(시장 우범기)는 전주시 농촌 지역 내 안전대책 시설 개선 및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해 2023년 12월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영농편의 증진을 위한 상생발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 선정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5년까지 맞춤형 지원 통한 도내 창업기업 육성에 앞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와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어 갈 창업보육센터 육성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공모사업이다.

바이오진흥원이 주관하고 전북대학교, ECO융합생물연구원, 전북과학대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공모에서 호남권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2025년까지 지역 내 창업기업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각 참여 기관 간 정보 및 인적 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경

프라를 공유하고 기관별 특화된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도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 콘테스트, 기술 및 사업 고도화 프로그램,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2년간 총 50개사의 창업기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특히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전북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본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전북 도내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을 촉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전후방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도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들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향후 도내 다양한 창업 유관기관들과 더욱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창업 거버넌스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한전 전북본부 2024년 'ESG 경영혁신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는 지난 2일 외부전문가(연륜인, 대학교수, 환경단체 대표, 변호사)들로 구성된 'ESG 경영혁신 자문위원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전북본부는 이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한전의 ESG경영 실천사례, 안전한 일터 조성,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에 대한 경영현안을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전력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전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ESG경영으로 친환경 전력설비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환경 구현 등 실천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한전에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직인그림별 맞춤형 실무능력 향상 교육과 신입직원 대상 안전역량 강화 활동에 대하여 공유하였다. 아울러 지역 유관기관간의 안전활동 확대 계획과 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 방안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대응방안 고도의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은 전력공급설비의 건설에 관한 종합관리계획과 실무협의회(전북자치도·새만금개발청·농어촌공사) 지속 운영 등 적기공급 추진계획을 전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김옥기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경영혁신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연원섭 본부장은 "올해 한전 전북본부의 경영 슬로건인 '안전 On!, 소통 On!, Move On!' 전북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역사회와 한걸음 더 가까이 상생하는 한전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농어촌공 전북본부,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친환경 육상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은 해안·도서지역 육상양식(종묘)장 지하해수 개발가능 적지를 조사하고 양식어가에 개발·이용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며,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하해수(염지하수)는 바닷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담수와 섞인 것으로 연중 14~15°C의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며, 미네랄과 영양염류가 풍부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조 등에 의한 집단폐사를 예방하고, 동·하절기 유투비 절감이 가능해 양식어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사업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군위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정밀조사 내용은 지하수이용현황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물리검층, 양수시

/김옥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친환경 육상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험, 정밀수질조사 등이다.

이정문 본부장은 "사계절 온도가 거의 일정한 지하해수 확보로 가온, 감온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 최소화를 통해 양식어가의 생산원가 절감 및 탄소저감 등 친환경 양식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